

# '2020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3.27	서면회의	5	8	

○ 코로나 19 바이러스 국면으로 인해 서면회의로 전환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병구 위원, 양홍모 위원, 이규홍 위원, 서한나 위원, 송은영 위원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2	4	-	0	6	-	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6	-	-	6

다. 전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 건	7 건	
교양	<독전 2> 격려 및 제작품질 향상	담당부서 의견 전달, 제작시 권고사항 반영 <20.3월 조치>	'20.2월
교양	<다큐에세이 그사람> 퓨전국악에 대한 적절한 소재 선택, 보충설명 필요	제작진 전달 <20.3월 조치>	'20.2월
교양	<내가 그리는 세상> 환경보호의 중요성 강조, 홍보용 활용	제작진 전달 및 활용 가능성 타진 <20.3월 조치>	'20.2월
교양	<건강플러스> 비건등의 다양한 트렌드 반영	취지에는 동감. 현 여건상 쉽지 않으나, 점차 개선 <20.3월 조치>	'20.2월
교양	<시시각각> 코로나 바이러스 및 적절한 소재 선택. 청소년 계층 선발에서 보다 더 다양성 확보	전문가 및 여성 전문가 활용 <20.3월 조치>	'20.2월
보도	<뉴스데스크> 코로나19 관련 보도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제작팀 공유, 가능한 사항 수용 지시 <20.3월 조치>	'20.2월
보도	<뉴미디어> 유튜브를 활용한 우리 동네 예비후보, 보다 확대 필요	뉴미디어 부문에 대한 적극적 활용 및 다양한 시도 <20.3월 조치>	'20.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 명	전 · 현직	변동사유	비고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및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컨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 20.04.30
부위원장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 20.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송은영	대전여성정치네트워킹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20.02.25 ~ 20.04.30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b>1. 교양 : 다큐에세이 그 사람</b></p> <p>해외취업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잘 담겨 있어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대학 청해진 사업의 일환으로 멕시코에서 해외 취업을 이루고 한국의 명예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온 뒤라 더욱 더 공감가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p> <p>젊은 취업준비생들의 관점에서 해외취업은 언어의 장벽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도전해보고 싶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관문’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해외취업을 이룩한 학생들의 삶을 조명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카메라에 조금 더 담아냈다면 더욱 많은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선재 위원장)</p>	<p>&lt;다큐에세이 그 사람&gt;은 대전을 비롯해 부산, 대구, 경남, 제주, 안동MBC가 함께 만드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 3월 19일 방송된 ‘잠 못 드는 시인들의 불을 밝히는 청년’ 편은(대구 MBC 제작)은 손강하, 이지연 두 청년이 각각 말레이시아와 미국 시애틀에서 해외취업을 통해 인생의 활로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지적과 같이 성공한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p>	○		
편성	<p><b>2. 교양 : 건강플러스</b></p> <p>건강플러스를 시청했는데 3월 7일 방송분은 아나운서 2명이 진행하기에는 질문이 많지 않고 주치의의 설명이 많아서 1명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1일분을 보니 여자 아나운서 1명이 진행하는데, 2명보다는 1명이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편한 느낌입니다. 깔끔한 방송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임보라씨는 숙련도가 확보된 MC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건강 관련 내용이 다소 어렵다 보니 질문보다는 출연자의 답변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간결한 진행을 원했습니다. 깔끔하다는 평가에 감사드립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b>3. 교양 : 내가 그리는 세상</b></p> <p>1. 3월 7일 ‘보이지 않는 위협, 바이러스’ (대전대)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적 상황에 적절한 주제였음. 다양한 영상자료와 풍부한 정보가 인상적이었으며, 내용과 조화되는 음악과 깔끔한 자막처리로 전달력도 우수했음.</p> <p>2. 3월 14일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더 몰랐던 당신의 이야기’(순천향대) 세대 간 소통의 부재가 세대격차와 갈등 나아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요즘 부모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소개하며,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음. 질문의 내용이나 답변이 다소 평이하고, 주목도를 높일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p> <p>3. 3월 21일 ‘팔도기행 강원도’(배재대) 애니메이션 형식이 참신함을 주었으나 스토리텔링이 미흡하고 내레이션의 전달력이 떨어졌음 (양선희 위원)</p>	<p>대전MBC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lt;내가 그리는 세상&gt;은 현재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매주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영상 구현을 위해 제작진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b>4.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b></p> <p>1. 3월 9일 진행자 교체 - 김경섭 아나운서의 부재로 새로운 진행자(박종훈 분)가 투입되었는데 어색함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과 조화되는 모습이 좋았음 (양선희 위원)</p> <p>&lt;생방송 아침&gt; 3/24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며 진행자가 총선 관련 거소투표 행사에 관한 안내를 하여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보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p> <p>이날 방송중 &lt;맞춤이불로 창업신고 합니다&gt;라는 토너가 무척 유익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창업마켓존에서 학생들을 소개했는데, 재학생들 대상으로 학업과 병행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척이나 신기했고, 적극 권장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만의 맞춤이불을 만들기위해 대학생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매장에서 40년 경력의 사장님 조언까지 듣는 점도 보기 좋았습니다.</p> <p>졸업후 취업에 겁먹이지않고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대학생활을 하며 창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도전정신이 훌륭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개가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 (김종남 위원)</p>	<p>그 동안 박찬규 리포터가 진행했던 &lt;대전 어디까지 가봤니?&gt;를 종료하고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특별한 틀을 규정하지 않고 청년 창업이나 DIY조명, 특수차량 등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코너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도</p>	<p><b>5.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b></p> <p>2주 간 총선과 관련된 비슷한 주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5일에는 &lt;21대 총선 한달 앞, 충청 이슈는?&gt; 이라는 주제로 지역 정치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에 비해, 각 주요 정당 위원장들이 출연했던 22일의 방송 내용이 각 정당간 비방과 홍보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 문제에 관련된 혁신도시,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깊이 논의했으면 보다 유익한 방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또한, 기존에 제안했던 유튜브 썸네일을 1월에 방송되었던 것들은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나, 이후 방송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업로드 할 때에 해당 방송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를 &lt;21대 총선 한달 앞, 충청 이슈는?&gt;(예) 함께 병기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김선재 위원장)</p>	<p>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 주관 토론회 등을 소화했습니다. 총선 토론에 있어서 균형감과 중립성 등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총선토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더욱 유익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6. 보도 : 뉴스데스크</p> <p>&lt;뉴스데스크&gt;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 중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뉴스시청을 많이 했는데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나 이슈를 잘 준비해 방영해주어 잘 시청했습니다. 4.15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이 자칫 후보자들에 대해 잘 모르고 투표에 임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지역 출마자들의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편성과 적극적인 보도를 기대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lt;뉴스데스크&gt; 3/23          ‘굳게 닫힌 소비자 지갑’, “지역경제 살리자!” 등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비롯해, 지역의 보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보도가 다양하게 방송되어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총선 관련 보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요일은 시청하지 못했지만 이 날은 짧게 2건의 소식만을 전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박상민 위원)</p> <p>1. 3월 18일 ‘선택 2020, 충청이 민심이다. 주목 이 공약’ : 기자의 리포트에 앞선 앵커 멘트에서 대전·충남·세종 표심의 중요성을 언급, 캐스팅보트, 스윙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          캐스팅보트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적절하지만 스윙보트의 경우 지지정당이나 후보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잘못 쓰인 경우, 용어 사용에 신중</p> <p>2. 3월 23일 ‘나눔은 또 나눔으로... 함께 이겨내요’          따뜻한 뉴스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p> <p>3. 3월 24일 ‘책, 장난감 대여도... 드라이브스루의 진화’ : 소외나 배제로 인한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나 방안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p> <p>4. 3월 24일 ‘공약 옥석 가리고, 참여까지’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는 바람직한 보도였음.          (양선희 위원)</p>	<p>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슈부터 나눔과 상생, 따뜻한 배려, 고립감 극복과 힐링 아이템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슈 블랙홀로 자리잡고 있지만 다양한 총선 기획보도 공약분석과 후보 공약 비교 등을 통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균형감있는 보도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p>	○			